

# 美 찾은 김준... 배터리·소재 사업 글로벌 성장 전걸음

(SK이노베이션 사장)

새해 첫 날 서산공장 방문 이어  
美 출국해 현지 일정 '광폭행보'  
원가 경쟁력·수주 확대 등 강조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연초부터 배터리·소재사업 행기기를 통해 비정규 중심 사업구조 혁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배터리·소재사업 관련 국내외 일정을 쉴 틈 없이 소화하며 회사 미래 먹거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7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준 사장은 새해 첫 날 서산, 증평에 위치한 배터리·소재 공장을 방문하고 이어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준 사장은 지난 1일 아침 서산과 증평에 각각 위치한 배터리·소재 공장을 방문했다. 과거 CEO들이 SK이노베이션의 정유·화학사업 핵심 생산거점인 울산CLX(Complex)를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지난 1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배터리 서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다음날 신년사에서 김준 사장은 "배터리·소재사업에 기반해 회사의 글로벌 성장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배터리사업은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를 지속 확대

해 글로벌 Top Tier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소재사업은 LiBS에 이어 FCW를 새로운 성장옵션으로 시장 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김 사장은 미국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우선 김 사장은 지난 4일(현지시

간) 신규배터리 공장이 설립될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주청사에서 조지아 주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조지아 주 잭슨카운티 커머스 시에 연간 9.8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인 2022년까지는 10억달러, 2단계 2025년까지 총 16억7000만달러(약 1조 9000억원)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조지아주역대 외자 유치 중 사상 최대 규모다.

MOU 체결 전날 김 사장은 조지아주 커머스 시 공장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 보고 클락 힐 커머스 시장 등 주요인사와 증설 일정 및 현지 고용 계획 등에 대해 상호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준 사장의 미국 내 두 번째 행보는 'CES 2019' 참관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최초 CES 참석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배터리사업과 소재사업의 최첨단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CES가 SK이노베이션이 기존 정유·화학·윤활유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배터리·소재사업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히고 동시에 회사의 기업가치 성장 여력을 증명하는 자리인 만큼 김준 사장이 라스베이거스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한다는 계획이었다.

김준 사장은 CES 현장에서 글로벌 고객 대표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등 배터리·소재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또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부스를 돌며 최근의 기술 트렌드를 점검하고 자율주행 등 관련 영역의 다양한 업체들과도 미팅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전통적 장치산업에서 미래 기술을 탑재한 첨단 회사로 변모 중"이라며 "기해년 연초부터 김준 사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배터리·소재사업 등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가진 차별적 경쟁력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진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할인·결제·적립 통합 'U+멤버스' 출시 1년만에 누적방문 1억건 돌파

LG유플러스는 멤버십 할인과 휴대폰 소액결제, 제휴사 포인트 적립이 동시에 가능한 할인·결제·적립 통합 서비스 'U+멤버스'가 출시 1주년을 맞아 누적 방문 1억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출시된 U+멤버스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휴 브랜드에서 멤버십 할인과 휴대폰 소액결제,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450만명, 누적 방문 수 1억건, 하루 평균 31만건의 방문수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년간 U+멤버스 내에서 총 240만건의 제휴사 멤버십 발급이 이뤄졌고, 월 누적

28만명의 이용자가 광고보기 적립금으로 통신요금을 할인 받았다.

이용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고객 중 여성이 52%, 남성이 48%로 여성 고객이 더 많이 이용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25%) ▲40대(23%) ▲50대(12%) ▲10대(5%) 순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주년을 기념해 31일까지 U+모바일 이용 고객이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출석체크를 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교환권, 치킨교환권, 영화관람 패키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김나인 기자 skkni@

## 현대車 그랜저, 국내車 1위 '판매왕' 등극

2·3위 '싼타페·아반떼' 順  
수입차 1위는 벤츠 E클래스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국내 판매 1위 차종으로 등극했다. 수입자동차는 벤츠의 E클래스가 판매왕 자리를 차지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승용차 신차등록대수는 총 130만1780대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현대 그랜저는 11만3091대를 기록하며 신차등록대수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 싼타페, 3위는 현대 아반떼가 이름을 올렸다.

판매 순위 상위권을 석권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말 출시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쉐라오를 필두로 올해 실적 향상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쉐라오이드는 현재 사전계약 2만500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산 승용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쉐보레, 제네시스 순서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점유율 합계는 78%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쌍용은 티볼리의 꾸준한 인기와 렉스턴 스포츠의 가세로 전년보다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며 3위로 올라섰다. 4위 르노삼성은 신차 클리오의 부진과 더불어 주력 차종인 SM6의 신차등록대수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점유율이 0.8%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 승용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토요타, 폴크스바겐, 렉서스 순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는 7만대 돌파라는 신기록

을 세우며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했다. 반면, BMW는 지난해 '리콜사태'로 전년보다 15%이상 감소한 판매량과 5%이상 감소한 점유율을 받아들이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했다.

수입 승용차 신차등록대수는 지난해 총 26만3548대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한 차종은 3만5539대를 등록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다. E클래스는 수입차 전체의 13.5%에 달하는 성적을 거뒀다.

2위는 2만3498대를 판매한 BMW 5시리즈, 3위는 9736대의 BMW 3시리즈가 이름을 올렸으며 4위 토요타 캠리와 5위 렉서스 ES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전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GLC는 수입 SUV차량 중 판매실적 1위를 차지했다. 판매를 재개한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그 뒤를 이었다.

/정연우 기자 yjw964@



현대자동차 그랜저 /현대자동차

## 한화큐셀, 獨 태양광 시장 1위 달성

한화큐셀이 2018년 독일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7일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 EuPD리서치에서 실시한 독일 태양광 설치업체 집계조사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3%p 상승한 11.5%를 차지했다. 고효율 중심의 독일 프리미엄 태양광 시장을 꾸준히 공략한 결과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독일은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3.6%에 달하고 태양광 발전비중은 6.1%에 달

하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이다.

특히 독일은 평균 일조시간이 한국과 비슷함에도 태양광 발전이 석탄이나 가스 발전에 비해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주택용 및 상업용 태양광 시장을 중심으로 고효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 전력판매가 아닌 자가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한화큐셀은 독일 태양광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이 독일 뮌헨에서 유럽 최대 태양광 전시회 'Intersolar Europe 2018'에 참가,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주택용 및 상업용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화큐셀

## SK텔링크, '00700' 이용자 목소리 듣는다

SK텔링크는 새해를 맞아 '국제전화 00700'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9년 00700을 말하다'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제전화 이용자들이 '00700'에 바라는 제안과 생각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17일까지 '00700' 홈페이지에 우선 번호를 남긴 후 '통화품질', '요금&요금제', '이벤트', '00700앱&홈페이

지', '기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사항에 대해 바라는 내용을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연령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00700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한 고객 중 총 777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3일 개별 통보 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00700 새해맞이 고객소통 이벤트 포스터. /SK텔링크